

김유정 소설의 근대성과 여성의 신체

이태숙*

차례

1. 서론
2. '들병이'의 교환가치와 신성한 생존
3. 신체에 대한 권력과 폭력으로서의 생명정치
4. 결론

<국문초록>

한국근대문학사에서 근대성은 동일성의 근대성으로 시작되었다. '이성 문학'으로서의 근대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재적 발전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근대성을 차이를 통해서 고찰하는 방법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인회와 관련하여 모더니즘 작가로 분류되어 왔던 김유정 소설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은 그의 문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푸코의 근대적 신체는 그것이 규율과 통제라는 정치적 규정성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유랑농민의 아내로서 성매매에 내몰렸던 '들병이'는 김유정 소설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다. '들병이'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제정책의 왜곡과정에서 농촌에서 내몰리고 도시로 들어올 수 없었던 농민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면서 모두의 소유이기도 한 유랑농민의 아내로서 들병이의 신체는 푸코의 유사-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카페의 여급이나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육부교수

기생과 달리 신체를 통한 권력의 형성이 망 속에서 규정된다는 점에서 아감벤의 경제적 신체로서의 성격도 보인다. 정치적으로 규정된 신체라는 의미에서 들뢰지의 신체는 생명권력과 연결되고,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사물화 된다. 이렇게 하나의 ‘순수 형태’로 삶을 영위하게 되는 들뢰지는 그의 위상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근대성이 발현하고 확장되는 존재가 된다.

핵심어 : 생명정치, 생명권력, 호모 사케르, 벌거벗은 생명, 근대적 개인, 유사-주체

1. 서론

우리 근대문학사는 ‘이식문학의 역사이다’라고 임화가 주장하였을 때, 근대성은 서구적 근대의 모방으로서 정립된 일본 근대를 이식하는 식민지의 문학이 우리 문학이라는 기본 전제가 제시된 경우이다. 근대문학사에 관한 논쟁은 근대문학의 식민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길고 지난한 과정이다. 60-70년대의 역사학계와 국문학계의 근대 기점론은 이러한 근대문학의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시대에 뿌리를 둔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은 사학계와 문학계뿐만 아니라 경제학, 철학 등으로 외연을 확장해 가면서 다양한 논점들을 통해 진화해 왔다. 내재적 발전론이 풀어야 할 과제가 조선후기 근대성의 질적, 수량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근대적 주체의 성립과 수량적 근대화를 연계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적 발전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유교에서 찾는 일련의 서구적 관점과 결합한 논의가 유교적 근대성론이다. 유교적 근대성론¹⁾은 기존의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

1) 황정아, 「한국의 근대성 연구와 ‘근대주의」, 『사회와철학』 31, 사회와철학연구회, 2016, 37-64쪽.

어서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의 근대성론과 방법론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른 지점에서의 문제제기에 수렴할 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근대성론과 탈근대성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근대성 주장의 이면에는 근대성론 자체가 내재한 국민국가라는 전제의 해체를 중심에 두는 논의도 있다.²⁾ 이러한 논의는 근대성 자체가 근대국가의 성립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성론이 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향성을 보여주지만, 역설적으로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근대성론과 역시 방법론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동일성으로서의 근대성 이론은 다시 한 번 차이를 강조하는 탈근대성론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양자는 구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대의 현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타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근대성 담론이 역사, 정치, 경제와 같은 거시적 담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탈근대성 담론은 신체, 규율과 같은 미시적 관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도 양자가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탈근대성 담론으로 우리 문학을 분석할 때 서양 시각에 우리 문학을 꿰뚫는 오류를 염려하는 일부의 시선은³⁾ 방법적용의 적절성 여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만 방법론 자체에 대한 거부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황정이는 유럽중심주의의 근대성 논의를 넘어서 수 있는 근대성 확산의 방법으로 유교적 근대성론에 주목해야 한다는 최근 철학계와 사학계의 근대성 담론에 주목한다.

- 2) 조정환,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137-165쪽.
- 3) 이도흠은 내재적 발전론자와 식민지 근대화론자의 주장 가운데서 조선후기의 실증적 분석의 유효성을 꼼꼼히 검증하는 과정을 문학 내에서 찾으으로써 내재적 발전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양적 근대의 한계를 넘어서 수 있는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도흠의 이러한 우려는 실증적 관점이 배제된 채 방법론적 적용이 무리하게 가해질 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실증이 확증되어야만 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다양성을 배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도흠, 「근대성 논의에서 패러다임과 방법론의 혁신 문제」,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2009, 254쪽.

김유정 문학의 근대성은 당대 구인회와의 관련성이라든지, 모더니즘의 미적 근대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 논의는 모더니즘을 하나의 사조로 보거나 혹은 근대성의 질적 규정성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근대성을 합리성으로서의 동일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근대성 담론이라면 이들 사이의 차이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탈근대성 담론이다. 양자는 구별되지만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관점이다. 따라서 김유정 문학의 근대성을 그의 문학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일관된 이론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일성의 근대성 담론과 차이의 탈근대성 담론이 모두 필요하다. 화폐경제의 도입과 확산으로 근대화가 진행되었던 당대의 사회경제적 측면과 그러한 사회를 바탕으로 한 정치성으로서의 규율권력이 신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탈근대화 담론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김유정 문학의 근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구인회와 30년대 모더니즘 문학에서 이질성으로서의 김유정의 근대성은 바로 탈근대화 담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근대성에 대한 시각이 발현되는 지점이다. 김유정의 문학에서 ‘들병이’는 당대 다른 문학작품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유형으로 제시된다. 당대 현실의 가장 극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근대화가 진행되어 가던 일제강점기 농촌사회의 절박한 상황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유효한 유형이다. 그동안 ‘들병이’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김유정 문학에서 가장 주목받아 온 인물유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병이’가 가지는 사회경제학적 특징을 근대문학으로서의 근대성과 연관하여 분석하는 논의는 아직은 시도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⁴⁾ 이를 위해서는 화폐경제하에서

4) 근대성에서 여성주체가 차지하는 의미에 관해서는 여성주체가 근대성의 타자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중적 타자라는 논점이 제기된다. 들병이의 유사-주체를 신체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하는 방법론적 접근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과 연관하여 근대성을 질적 규정성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태숙, 「근대성과 여성주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184-185쪽 참고.

유랑농민의 아내로서의 ‘들병이’의 교환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유랑농민의 아내의 근대적 성격이 문학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하 유랑농민의 아내의 신체가 권력주체의 형성과 함께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리되어 왔는가에 대한 생명정치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요구된다. 농민의 아내의 신체가 규정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근대적 신체, 규율권력으로서의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성과 탈근대성으로 구별되어왔던 근대성 담론이 김유정의 여성인물형의 형성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분석과 신체담론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 근대문학의 모더니티와 김유정 문학의 특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분석의 목표가 된다.

2. ‘들병이’의 교환가치와 신성한 생존

김유정 소설의 근대성은 근대주체의 성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서구 근대사회에서 노동자의 탄생은 근대적 주체의 성립과 관련되어 있다. 자본주의 이전의 공동체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분화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동의 분업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시공간적 분리와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한 농촌과 도시간의 분화가 생겨난다. 장원 경제와 신흥 부르주아 상인 자본의 대결구도 속에서 농촌의 도시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생산수단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자유로운 임금노동자가 출현한다.⁵⁾ 서구적 근대를 동일성의 관점에서 받아들였을 때 일제강점기하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을 박탈당하고 떠돌아했다는 점에서 서구 근대의 농민이나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다. 그들과의 차이는 그들을 받아들였던 도시가 당시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5) 김영희, 「푸코의 후기 ‘권력’에 관한 연구」, 『문화와융합』 37-2, 한국문화융합학회, 2015, 383쪽.

이다. 김유정 소설의 주인공인 유랑농민은 전근대적 공동체 사회가 붕괴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이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전근대적 공동체 사회의 붕괴는 일제에 의한 강압적 합병의 결과이기도 하였지만 조선후기부터 시작되었던 자본주의화의 진행과정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진 일제의 수탈로 당시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유랑을 하게 된 상황을 유랑농민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일제는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지주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고 조선농촌의 생산, 유통 주체를 지주 중심으로 꾸려 자국 발전에 필요한 미곡 생산과 이출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1920-34년간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한다.⁶⁾ 특히 영세한 토지를 소유 내지 경작하는 자소작 하층, 소작농들은 1910년대부터 의식주 중심의 최소한의 생활상태를 통해 간신히 농가경제를 유지하거나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920년대 들어서도 전혀 호전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불안정한 소작권 하에서 지주들이 상품성 있는 미곡 생산을 위한 농업개량을 추진하며 소작료율의 상승 등 이들의 농가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더욱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1920년대 말 세계대공황을 맞이하며 농촌사회가 몰락하면서 식민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을 거치며 농가경제는 자본주의적 화폐경제의 영향이 커졌고 이로 인해 1920년대까지는 농가경제에서 현물 자금자족적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대지주들은 소작료로 수취한 미곡을 판매하여 현금수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지만, 다른 계층들은 농작물은 미곡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금용으로 사용했다. 산미증식계획 실시는 미곡상품화를 조장하고 농업경영에 있어서도 밭작물 보다 미곡단작형으로 유도해 나갔다. 특히 지주들은 소작지의 경우 논은 물론이고 밭에 대한 소작료도 별로 받았는데, 농지개량과 수리시설 확보로 논 면적을 늘려가고 이

6) 이승순, 「1920-30년대 전반기 식민지 조선의 농가경제분석」, 『사학연구』 119, 한국사학회, 2015, 286쪽.

를 통해 미국 생산량과 판매량을 증가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산미증식계획의 실행으로 개별농가들은 산업정책적으로 화폐경제구조로 들어가게 되고, 농민들은 자급자족적 조방경영에서 집약적 상품적 경영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우량품종을 증산케 하려면 금비도 농구도 구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종자 또한 마찬가지였다.⁷⁾ 1930년대 농촌의 이러한 상황은 그대로 사회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농민과 농촌경제의 몰락을 주체화 한 일련의 농촌소설들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제시된다.

따라서 1930년대의 농촌계몽운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일련의 농촌소설들에 나타나는 당시 농민들이 처했던 상황은 단순히 열악한 식민지하 경제체제에서 극악한 상황에 처한 하위주체의 문제가 문학의 주된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것은 거대한 화폐경제의 구조가 농촌사회로 일제의 농촌정책을 따라 확장되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당시 우리 농촌이 직면해야 했던 근대적 질곡의 상황이었다. 김유정의 농촌과 농민을 배경으로 한 일련의 소설들은 당시 조선이 처한 배금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전근대적 조선사회를 어떻게 강타하고 있었던가를 하위주체를 중심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숫」의 근식이는 들병이에게 갖다 주기 위해 마누라의 속곳과 밥솥까지 훔쳐낸다. 들병이의 현실과 화대를 설명하면서 김유정이 돈이 아닌 갖가지 물건이 등장해야 했던 당대 상황을 절절히 묘사한 것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농가경제의 파탄이 식민지배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기에 총독부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사회정책을 채택하고 선별적 농가경제 안정화를 추진했지만 결국은 농민층의 몰락과 조선 내부의 계급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⁸⁾ 애국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번져가던 농촌계몽운동이 직면해야 했던 상황은 바로 이러한 식민지배하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에 의해 교환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 농부의

7) 위의 글, 310-313쪽.

8) 위의 글, 323쪽.

신체가 아니라 그의 아내의 신체가 되게 된 것이 아이러니의 시작이 된다. 농토를 떠나 도시로 향한 농부들이 임금노동자가 되면서 그들의 육체가 권력 대상으로서 근대적 신체가 되었던 것이 서구적 근대의 상황이었다면 일제 강점기하 유랑농민들은 그들의 신체가 교환가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랑농민 대신 그들의 아내가 자신들의 신체를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아내를 성매매에 내놓아야 하는 유랑농민들에 대해 김유정은 「朝鮮의 집시-들뽕이 哲學」에서 “沒自覺的 服從”을 필요로 하는 “勞動”이라고 주장한다.

밥!밥! 이러케 부르짖고 보면 대뜸 神聖치못한 餓鬼를 聯想케된다. 밥을 먹는다는 것이 따는 그리 神聖치는 못한다부다. 마치 이社會에서 求命圖生하는 糊口가 그리 神聖치 못한것과 가치-거기에는 沒自覺的 服從이 必要하다. 破廉恥의 虛勢가 必要하다. 그리고 賣春婦의 愛嬌 阿諛도 必要할는지 모른다. 그러치 안코야 어디 제가 敢히 社會的地位를 壟斷하고 生活해 나갈 道理가 잇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그런 모든 假面 虛飾을 벗어난 覺醒的 行動이다. 안해를 내놔코 그리고 먹는 것이다. 愛嬌를 판다는것도 近者에 이르러서는 完全히 勞動化하였다. 勞動해야 生活하는 여기에는 아무도 異議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卽 들뽕이다.⁹⁾

서구의 집시는 유럽인과는 민족적 기원을 달리하는 집단이다. 그 지역의 토착민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집시의 특성은 단순한 유랑민을 넘어서는 문화와 민족을 달리하는 집단으로 나타난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생존의 근거로서의 토지를 잃고 유랑하는 유랑농민들은 생존형태에서 집시

9) 김유정, 『원본 김유정전집』, 전신재 편, 도서출판 강, 2000, 414-415쪽(이후 작품의 인용은 이 책의 수록 페이지를 명기 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상세한 주는 생략한다.).

와 비슷하다. 여성들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집시와 유랑농민의 차이는 민족이나 문화의 유사성이 집시에게는 없고 유랑농민에게는 있다는 점이다.¹⁰⁾ 이 인용문에서는 생존 자체가 신성하지 못한 현실에서 먹기 위해 신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내놓아야 하는 들병이와 그 남편의 삶이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생존을 영위해야 했던 근대 노동자의 사물화 과정과 연계되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김유정에 의해 들병이의 애고는 ‘허식이 아닌 각성적 행동’이며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민의 아내의 성매매가 근대성을 가지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 형태인 들병이가 가지는 근대성을 설명해야 한다. 즉 전근대사회의 성매매와 들병이가 가지는 차별성이 근대성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들병이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단지 기생이나 사당패와 같은 특별한 계급의 성매매가 공적으로 조선시대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외에 이른바 색주가가 있었는데 색주가의 포주는 왈패로 포도청 포교들의 끄나풀로 요즘의 범죄와 연루된 매춘과 비슷한 양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신분계급으로 존재했던 성매매 여성이나 범죄와 연루되어 존재했던 색주가가 있었다면, 이들과 달리 들병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술을 팔던 이들을 말한다. 이들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변강쇠가」의 주인공 공 옹녀가 들병장수를 하였다는 이야기나, 劉淑(1827-1873)의 「大快圖」에 남자 들병장수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19세기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들병장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 하지만 들병장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 역사상 매춘여성의 초기 기록으로 등장하는 양수척(楊水尺)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 민족이었다는 점에서 서구 집시의 생존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참조할 수 있겠다.

11) 강명관은 이들 왈패가 가벼운 범죄자의 딸이나 누이들을 위협하여 데려오기도 하고, 시골의 어수룩한 여자들을 유인하여 잡가를 가르쳐서 賣笑를 시켜 영업을 하였고, 포교들에게 상납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강명관, 『조선풍속사3』, 푸른역사, 2010, 116쪽.

도 단순히 술을 파는 것과 성매매를 겸한 것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더군다나 김유정 소설의 들병이처럼 농민의 아내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술을 파는 경우의 예는 이후에 확인된 바가 없다. 따라서 ‘들병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술을 파는 행태와 관련하여 붙여진 명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김유정 소설의 들병이와의 유사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유정 소설의 들병이와 같은 형태는 농촌의 몰락과 화폐경제의 확산과 정착이라는 일제강점기하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의 관련에서 논의해야 한다.

1930년대 농민의 아내로서 성매매를 통한 교환가치의 대상이 되었던 이러한 들병이에 대한 김유정의 관심은 일련의 소설들로 나타난다.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그의 소설들에서 들병이들은 중요한 근대적 주체로 작동한다. 들병이의 근대적 성격은 바로 그의 신체가 교환가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들병이와 성매매수자의 관계에 대해 김유정은 “제난봉”이라고 묘사한다.

들병이가 들면 그날밤부터 洞里的 靑年들은 제난봉이난다. 그러타고 無謀히 散財를 한다든가 脫線은 아니한다. 아모쪼록 廉價로 享樂하도록 講究하는 것이 그들의 버릇이다. 여섯이고 몇치고 作黨하고 出斂을모여 술을 먹는다. 한사람이 五十錢式을 낸다면 都合三圓-그 三圓을 가지고 各其 三圓어치 權勢를 標榜하며 거기에 附隨되는 艷態를 要求한다. 萬若 들쟁이가 이價値를 無視한다든가, 惑은 公平치못한 愛慾濫費가 있다든가, 하는 세에는 담박 紛亂이 일어난다. 다가치 돈은 넷는데 여섯서 나만 제눓느냐, 하고 是非條로 덤비면 큰 頭痛거릴 쏘만 아니라 돈못받고 싸귀만털리는 逢變도 없지않다. 하니까 들쟁이는 이 여섯친구를 同時에 撫摩하며 三圓어치 待接을 無事公正히 하는 것이 한 秘訣일지도

12) 이를 참조하면 들병장수는 술을 파는 형태에 관련된 명칭이며 매매촌과 관련된 명칭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들병이는 매매촌의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책, 117쪽.

모른다.

이러케 決算하면 내긴 五十錢을 냈스되 그效用價値는 無慮 十八圓에 達하는 심이었다. 이런 조흔機會를 바라고 농군들은 들병이의 尋訪을 적이 苦待하는 것이다.¹³⁾

일반적인 남녀의 애정관계와 들병이의 성매수가 차이를 가지는 점은 일대일 관계인 남녀의 애정관계와는 달리 들병이의 서비스가 다수를 동시에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돈을 오십 전씩 모아서 여섯 사람이 삼원을 만들면 그 서비스는 일인당 오십 전짜리 서비스여야 하지만 남성 성매수자들은 그것이 삼원짜리 서비스이기를 바란다. 들병이는 삼원짜리 서비스를 공평하게 여섯 사람에게 그의 입장에서는 18원짜리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이 서비스의 성격이 존재한다. 어쩌면 숫자놀음을 통해 재미를 불러오려는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으나 화폐경제와 서비스의 교환에 관한 흥미로운 전제가 상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타 사물의 매매와는 다른 들병이의 서비스의 교환가치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일반 재화의 경우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상품가가 정해져 있고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구매자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가능한 정도라면 들병이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셈법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성매수자와 판매자의 계산방식이 전혀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이 화폐경제에서의 가격결정이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화폐경제가 농촌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르게 셈하고 있다는 점에서 들병이의 서비스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정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들병이의 신체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매매되는 신체가 되었다는 의미 이상이 있다. 매춘은 근대이전에도 존재했었고 매춘을

13) 김유정, 「조선의 집시」, 앞의 책, 418쪽.

대가로 화대를 받는 거래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남편인 농민의 노동이 생존의 수단이 되지 못할 때 그의 아내의 성매매가 노동자의 노동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당대에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 들병이의 성매매가 이전의 성매매와 구별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신체는 화폐경제의 거래에서 노동의 수단이지만 들병이의 신체는 단순한 수단을 넘어서는 권력관계의 암투가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여기에 들병이의 특수성이 있다. 단순 임노동자가 그의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얻는다면 들병이의 경우 그의 신체를 중심으로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의 교차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들병이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이다. 그녀의 남편은 농민이었지만 자신의 노동의 현장이었던 농토로부터 분리되어 유랑하는 존재이다. 그가 유랑민이거나 농민으로서의 생존권이 박탈되었을 때 아내는 자신의 신체를 시장의 거래대상으로 내놓음으로서 그의 신체는 이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변동이 일어나는 전쟁의 상황이 된다. 들병이의 육체의 소유자는 남편이기도 하고 성매매수이기도 하고 들병이 자신이기도 하다. 신체에 대한 권력관계가 들병이의 신체를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 지점에서 푸코의 신체권력의 개념이 필요하다. 푸코의 권력 개념은 권력이 특정한 주체에게 선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권력개념과 차별화 된다. 푸코의 권력은 망 속에서 작동하는데 이 망 속에서는 권력의 주체인 개인들이 끊임없이 순환한다. 즉 권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이기도 한 것이 푸코의 권력개념이다. 푸코의 관점에서 들병이의 육체는 근대의 규율권력이 작동하는 망이다. 푸코의 규율권력은 영토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배치를 문제 삼고 개인의 신체에 가해지는 권력의 작동 양상을 문제 삼는다. 이때 어떠한 배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들병이의 신체에 가해지는 권력의 주체는 달라진다. 근대적 주체가 교환가치를 통하여 '신성한 생존'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양상은 이렇게 들병이의 신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권력의 망을 통해서 드러난다.

근대적 개인은 새로운 권력이 생성되는 미시물리학을 의미한다. 곧 신

체에 대한 정치적, 세부적 투자 양식이 구성해낸 일련의 효과를 지칭하는 이름이 바로 근대적 개인이다. 근대적 개인이란 정상화된 개인(individual normalisé), 곧 순종화된 개인을 의미한다. 근대적 개인은 신체와 영혼의 통제, 품행과 성격의 통제를 통해 끊임없이 감시받고 감시하며 처벌되고 처벌한다.¹⁴⁾ 전근대적 사회에서 규정되었던 농민의 아내에 대한 신체적 규율이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근대화가 일어나던 곳이 바로 유랑농민의 아내로서의 들병이의 신체였고, 그것은 근대적 개인이 형성되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푸코의 규율권력이 학교, 병원, 군대와 같은 근대적 기관들을 통해 형성되고 있었다면, 들병이의 경우 그것은 근대적 기관대신 근대적 매춘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카페의 여급이나 기생과 같은 매춘의 일반적인 형태와 들병이의 차이는 그것이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들병이의 신체는 생명권력과 연결된다. 김유정 소설에서 신체의 권력은 폭력과 연관되어서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근대적 신체와 생명정치가 연관되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랑농민의 아내로서의 들병이는 근대적 생명정치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의 의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푸코의 근대적 신체가 농민의 아내의 신체를 통하여 신체적 규율의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었다면, 그 신체는 폭력과 연계됨으로써 근대적 생명정치의 문제로 전환된다.

3. 신체에 대한 권력과 폭력으로서의 생명정치

김유정 소설의 폭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분석이 시도되었다.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매저키즘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있었고,¹⁵⁾

14)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2003, 219-222쪽.

15) 김주리는 김유정 소설의 폭력성이 매저키즘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보았다. 김주리,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파괴적 신체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21, 한국

소설내적 구조에서 드러나는 모방욕망과 작가 김유정의 개인사를 연관시켜 욕망과 내적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었다.¹⁶⁾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작가와 작품의 관련양상에서 폭력을 고찰하거나 작품 내적 구조를 통해 폭력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성과는 있었지만, 문학사적으로 이 시기 비슷한 유형의 작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넘쳐나는 폭력성의 원인을 시대적 연관성과의 관련 하에서 규명하기보다는 문학내적 차원이나 작가 개인의 차원에서의 폭력성의 분석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한 점에서 김유정 문학의 폭력은 그러한 폭력이 빚어지는 당대의 망탈리테의 차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위로는 근대이전으로 수렴하는 계보학적 접근까지 포함해야함을 의미한다.

아내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폭력의 근대적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근대사회, 즉 봉건제하의 유교사회에서 아내의 신체에 대한 권력 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유교를 근간으로 했던 조선시대에 아내 구타가 규범으로 허용 되었는가 아닌가는 하는 것은 역사학계에서도 논쟁적인 주제이다. 향약 등에 부부가 서로 때리고 욕하고 싸움하면 중벌에 처한다는 규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남편의 일방적인 구타가 규범이나 법으로 허용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내구타는 유교적 도덕규범 하에서 남편의 권한으로서 허용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내훈』 「부부」장에 “남편을 업신 여기는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 꾸짖음이 뒤따를 것이요, 분노가 그치지 않으면 매질이 뒤따를 것이다”는 것과 “(남편이) 혹시 때리고 꾸짖더라도 당연한 일이거나 하고 생각할 것이지...”라는 표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아내와 며느리에 대한 구타는 가부장적 통제의 수단으로서 남편과 시부모에게 관대하게 허용되어 있었다.¹⁷⁾ 부부관계가 철저하게

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16) 홍혜원은 김유정 소설의 폭력성이 작가의 개인사적 상황의 폭력성의 반영이라고 보았다. 홍혜원, 「폭력의 구조와 소설적 진실」, 『현대소설연구』 47, 현대소설학회, 2011.

17)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한양대학교, 2013, 279-280쪽.

종속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던 것이 전근대적 상황이었고, 그것은 경제적 연속관계를 넘어서는 심리적 굴종과 신체적 소유의 단계로까지 설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이기는 하였지만, 당대의 하위계층, 특히 도시와 농촌에서 더욱이나 궁핍한 농촌의 하위주체인 농민과 그의 아내에게는 그러한 전근대적 규정성이 여전히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가정경제의 책임을 진 가장으로서의 의무는 사라졌지만 아내의 신체에 대한 권력의 주체로서의 남편의 권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김유정의 소설에 등장하는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폭력이 일상화된 일련의 상황들은 기존 연구에서는 당시 하위계층들의 삶의 열악함을 보여주기 위한 상황의 제시라고 분석되어 왔다. 특히 농민이나 안잡자기 등 사회적으로 하층계급에 위치한 그들의 신분상의 문제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소설 내에서 맥락도 없이 등장하는 잔인한 폭력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장치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중세와의 관련 하에서 30년대를 분석해보자면 하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아내에 대한 폭력은 마치 아동에 대한 체벌처럼 일종의 권리처럼 해석되어 왔던 것이 당대의 현실이 아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폭력의 이유와 효과도 다시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 내 폭력이 일부에만 제한적이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부분이 가정 내 폭력이 일상화되었던 당대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김유정 문학의 특성이 아닌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즉 현실 그 자체가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당대 삶의 진실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두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섹슈얼리티로 분석하여 매저키즘의 증상으로 해석하는 연구는 작가와 관련지어 작품내적 특성을 규명하는 분석의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당대적 윤리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아내나 성적 대상으로서의 들병이와 같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분노를 내재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 상황에서도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것이 김유정 소설의 폭력이 개인적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들의 신체가 처한 사회

적 상황의 경계성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조선시대 형률의 기준이 되었던 『대명률』에 나타난 부처 간 살상행위에 관한 처벌 법규를 보면 유교적인 가부장제의 구현에 따른 남녀 관계의 규정에 따라, 남편에 의한 처의 통제를 옹호하고 부처 간의 위계질서를 남편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처의 남편에 대한 폭력 행사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며 加刑의 대상이 되었지만,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감형의 대상이었다.¹⁸⁾ 그렇다면 이들 여성, 아내가 자신의 신체를 사유화하는 남성, 남편의 폭력에 순응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그들은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신체를 사물화 하여 얻은 돈을 가지고 다시 폭력남편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편이라는 소유자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 결과 모든 사람, 즉 자기의 이웃과 영원한 전쟁 상태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쟁상태에 있는 것에 비하면 남편의 폭력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정글이 된 시대에서 들뜬에 던져진 유랑농민의 아내는 무기력한 남편을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주권을 양도받은 권리를 소유한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고 한다면 유랑농민의 아내는 주권의 포기를 통해 남편에게 신체의 소유권을 줌으로써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¹⁹⁾

「소낙비」(조선일보, 1935.1.29-2.4)에서 춘호의 처는 무능력한 남편이 돈을 해오라는 뉘달에 시달리다가 동네 부자 리 주사에게 겁간을 당한다. 그 사건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묘한 상황이다. 리 주사와 불륜관계에 있는 쇠돌 어멈에게 돈을 빌리러 간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쇠돌 어멈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춘호의 처가 자신을 평소에

18) 위의 글, 281-283쪽.

19) 국민국가에서의 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진석용 역, 나남, 2008, 240-241쪽 참조.

도 노리고 있던 리 주사가 혼자 있는 집에 굳이 들어가는 것이나, 그날이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인 것도 그러한 비정상적 이고 예외적인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장치로 작동한다.

그러나 의외로 아니 천행으로 오늘일은 성공이었다. 그는 몸을 소치며 썩 굿하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중에도 몸쓸 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듯이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짓거야 골백번 당한대도 남편에게 매나안맛고 의조께 살수만있다면 그는 사양치안홀 것이다.(중략) 다만 애키는 것은 자기의 행실이 만약 남편에게 발각되는 나절에는 대매에 마저 죽을 것이다. 그는 일변 기뻐하며 일변 애를 태우며 자기집을 향하여 세차게 쏘다지는 비쪽을 가분가분 내려달렸다.²⁰⁾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의 원인은 불륜이 아니라 빈곤이다. 가정경제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남편은 무능한 자신을 대신하여 아내의 불륜을 권장하고 있다. 아내는 불륜 사실이 발각되면 ‘매를 마줄 것이라’ 염려하지만 사실 남편은 돈 이원에 아내의 정조를 팔기 위해 ‘실패없도록안해를 모양내어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겁간을 당한 일이 ‘천행으로 성공’이라는 인식은 윤리적 차원의 정조의 상실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한 합리화이다. 몸을 팔아 남편의 매를 벗어날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하는 부부관계는 아내의 신체에 대한 소유자가 남편임을 절절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아내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남편의 소유에 대한 권력관계를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겁간’이면서 아니기도 한 상황, ‘기쁘기도 아니기도 한’ 상황,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당대 농민의 아내가 처한 경계적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방법이다. 김유정의 다른 소설들의 부부관계가 이 작품에 설정된 부부관계의

20) 김유정, 「소낙비」, 위의 책, 46-47쪽.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당대의 가장 극렬한 한계상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김유정의 소설에 등장하는 성매매 여성들은 농민의 아내이기도 하고 들병이, 혹은 카페의 여급이나 기생이기도 하다. 「따라지」의 아끼꼬와 같은 카페의 여급이나 「생의 반려」의 기생 나명주는 자본주의 제도하의 성매매 여성이지만 들병이나 몸을 파는 하층계급의 여성과는 다르다. 여급 아끼꼬나 기생 나명주의 성매매는 돈을 벌기 위하여 거리의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되었고, 그 수익도 자신의 것이란 점에서 들병이와 차별성을 가진다. 자신의 신체의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농민의 아내인 들병이와 이들이 차별화되는 지점인 것이다. 들병이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피폐된 농촌 사회와 그러한 사회에서 생존의 수단을 상실한 절박한 처지의 유랑농민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생존의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은 성매매 여성으로서 들병이의 주체성이다. 이러한 해석에서 유랑농민의 아내로서의 들병이의 시각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들병이의 입장에서 신체와 권력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푸코에 의하면 17,18세기에는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의 노동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규율에서 찾았다고 한다. 육체를 유용하고 동시에 순응적으로 단련시켜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1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생명은 그 자체가 관리의 대상이 된다. 즉 권력은 증식,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수준, 수명을 통계 내고 직접적으로 인구에 개입하여 조절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에 포섭된 생명은 18세기까지는 군주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이후로는 생명관리 권력에게 맡겨진다.²¹⁾ 성매매는 근대나 전근대나 그 관리의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치적 관점에서 관리되는 대상이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들병이의 경우는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생겨난 새로운 성매매의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일반

21) 강선형,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철학논총』 78, 새한철학회, 2014, 134쪽.

적인 성매매와 차이를 가지며, 농민의 아내가 ‘들병이’화 되는 양상은 경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생명정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푸코의 생명관리 권력을 발전시킨 것이 아감벤이며, 아감벤의 목적 없는 사유, 즉 목적으로부터 독립한 순수한 잠재성은 푸코의 새로운 사유를 위한 주체에 조응한다. 푸코가 『주체의 해석학』에서 말하는 ‘자기 배려’와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타자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대상인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더 이상 주체 내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반대로 주체가 모르고 있었고 또 주체 내에 거주하지도 않던 진실로 주체를 무장시키는 것이 관건이다.”²²⁾ 즉 푸코가 말하는 유사-주체는 권력의 대상이 되는 것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주체를 위한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에도 저항하는 주체이다. 근대적인 주체는 자기를 인식하기 위한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체가 주체 내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진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주체인 것이다.²³⁾ 카페의 여급이나 기생의 유사-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있었다면 들병이의 유사-주체는 더욱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들병이의 성매매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남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유사-주체와 차이를 가진다. 푸코의 유사-주체와 아감벤의 비오스가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조에 zoé와 비오스 bios를 구분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조에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동물, 인간, 신)에 공통된 것, 즉 살아 있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는 반면, 비오스는 이러저러한 개체나 집단에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을 뜻한다. 조에의 영역은 오이코스 즉 가정이었으며, 그것은 예외로서만 폴리스의 가장자리에 머물 수 있었다.²⁴⁾ 하지만 예외가 규칙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면 조에와 비

22)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동문선, 2007, 528쪽.

23) 강선형, 앞의 글, 145쪽.

24) 양창렬, 「생명권력인가 생명정치적 주권권력인가」, 『문화과사회』 19-3, 문학과지

오스는 더 이상 구분되지 않고, 별거벗은 삶의 공간이 정치공간과 일치하게 된다.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정관리를 책임지는 전통적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즉 유랑농민의 경우처럼 소작지를 박탈당하고 아내의 신체를 사물화 하는 가정의 경우 삶의 공간은 조에서 비오스로 정치화된다. 그러한 정치적 삶은 그의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유형이며 들병이는 그러한 삶을 전형화 하는 인물유형이다.

「산스골나그네」(제일선, 개벽사, 1933.3)는 김유정의 첫 번째 소설이다. 첫 발표작품인 「심청」을 습작이라 평가한다면 「산스골나그네」는 완성된 형태를 보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짧지만 이후 그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사건의 체계가 유랑농민의 아내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뿌리 뽑힌 인간들의 빈궁한 생활상, 무기력한 남성과 생활력이 강한 여성, 매춘’ 등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사실 이 작품은 이후 작품들에서 인물유형이 분화되기 이전의 원형적 형태²⁵⁾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이 필요한 작품이다. 산골의 조그만 술집은 가을이지만 술꾼들이 몰려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연히 찾아온 나그네(아낙네)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덕분에 동네 술꾼들을 불러 모은다.

“아즈머니 꺾은갈보사왔다지유? 좀 보여주세요.”

영문모를 소문도 다도논고!

“갈보라니 웬갈보?”하고 어리쌍쌍하다 생각을하니 턱업는소리는 아니다. 눈치있게 벽으로나려가서 보강지아페 웅크리고안짓는 나그네의 머리틀은근히슬어안었다. 자 저패들이 새떡을갈보로 횡보고 차저온맥시다. 물론 새떡편으론 망측스러운일이겠지만 달포나 손님의 그림자가드물

성사, 2006, 239쪽.

25) 하위주체로서의 유랑농민의 아내가 처한 다양한 현실적 형태들, 들병이를 비롯하여 안잡자거나 명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매춘의 형태가 이후의 작품들에서 분화되어 등장하는데 「산스골나그네」는 그 원형에 해당하는 인물유형을 보여준다.

든 우리집으로보면 재수의빗발이다. 술국을잡는다고 어디가 떨어지는게아니요 욕이 아니니 나를보아 오날만술좁과라주기바란다-이런의미를곰상곳게 간곡히말하였다. 나그네의 낮은 별반변함이없다. 늘한양으로 예사로이 승낙하였다.²⁶⁾

이 상황에서 농민의 아내(새댁)와 매춘여성(갈보)은 구분되지 않는다.²⁷⁾ 성을 판다는 전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갈보라 부르는 것은 남편 없이 떠도는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동네 술꾼들에게도 그렇지만 술집주인인 덕돌어멈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나그네도 술 팔라는 덕돌어멈의 권유를 사양치 않고 술꾼들과 나그네의 수작도 매춘여성과 다르지 않다. 그런 나그네를 덮쳐 아내를 삼고자하는 덕돌어멈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돈 삼십 원이 없어서 혼인이 파기된 스물아홉 노총각 덕돌어멈에게 우연히 굴러들어온 열아홉 나그네는 아내감으로 손색이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지만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30년대 농민의 아내의 비오스적 위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배제의 기준은 바로 그녀의 신체, 교환가치로서 의미를 가진 신체가 된다.

일종의 술집이자 여관을 겸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업종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은 당대 주점의 형태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술을 파는 주점을 “주막”이라는 명사와 관련시켜 고찰할 때, 18세기 화폐경제의 확산과 함께 장시(場市)가 열리는 시점에 주목하여 그 대로변에 형성된 주막거리를 주막의 등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⁸⁾ 근대적

26) 김유정, 『산스콜나그네』, 위의 책, 20-21쪽.

27) 갈보는 螞(냄새나는 벌레)에 甫라는 의존명사를 부친 것으로 이능화는 갈보의 종류에 기녀(妓女), 은근자(殷勤子), 탐양모리(搭仰謀利), 화랑유녀(花娘遊女), 여사당패(女社堂牌), 색주가(色酒家)가 갈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갈보는 성매매 여성을 이르는 통칭으로 볼 수 있다.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이재근 역, 동문선, 1992, 442쪽.

28) 주영하는 김홍도의 <행려풍속도병>(1778)에 근거하여 이 시기 주막이 확산되었을

형태의 주막에 대해서는 도회지의 주막은 음식점 전문이지만, 시골에서는 여관을 겸하기도 하였고, 간혹 갈보를 두거나 주부 스스로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는 등, 매춘의 성격이 있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주막의 밥값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싼 것은 3-4전부터, 가장 비싼 것은 20전 범위 안이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²⁹⁾ 「조선의 집시」에서 화대가 매우 현실적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주점의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내외주점’, ‘색주가’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외주점이 양인의 아내가 술을 파는 곳이었다면 색주가는 기생을 고용하여 술과 매음을 하던 곳으로 구별할 수 있다.³⁰⁾ 색주가는 술과 함께 기생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막과 차별화되는 업종이다. 색주가가 근대적 형태의 주막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시기에 관해서는 조선 후기로 볼 것인가 훨씬 이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³¹⁾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다면 주점을 떠돌며 성을 파는 형식의 농민의 아내나 이동하며 성(性)을 파는 들병이들은 모두 화폐경제의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형태의 성매매의 특징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스골나그네」의 성매매의 형태는 이러한 이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김홍도의 이 그림의 화제(畫題)는 ‘반촌점(飯村店)이다. 즉 음식을 파는 형태로서 장시와 함께 등장한 것이 주막이라 보는 것이다. 주영하,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실천민속학연구』 11, 실천민속학회, 2008, 12-13쪽.

29) 1909년 12월 당시 조선통감부 경시로 재직하던 일본인 경찰 이마무라 도모에(今村 鞆, 1870-1943)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주영하는 당시 주점으로서의 주막이 가지는 특징을 밝히고 있다. 주영하는 기억에 의존하는 글보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고찰한 글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오히려 객관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마무라는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에게 조선사정을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글, 7-8쪽.

30) 위의 글, 16-20쪽.

31) 주영하는 색주가를 주점이 분화한 근대적 형태로 보았지만 이능화는 색주가가 화폐경제가 통용된 이후에 생겼을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주영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능화는 선조 때 윤국형의 글을 인용하여 중국을 본떠 주점이 생겼으나 정착하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효종 이후 화폐가 통용되고 나서야 색주가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능화, 앞의 책, 451쪽.

행기적 특징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감벤에게는 조예와 비오스 자체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형식이 문제가 된다. 특히 그는 안/밖, 포함적 배제, 예외라는 위상학을 중요시한다. 삶으로부터 분리된 삶의 형태들은 마치 하나의 ‘순수 형태’³²⁾로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³³⁾ 자신의 신체를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삼아 사물화 하는 농민의 아내나 안잠자기, 들병이들이 가지는 근대성의 의미는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즉 포함적 배제로서의 위상에 있다. 농민의 아내이지만 그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사물화 됨으로써 하나의 ‘순수 형태’로 삶을 영위하게 되는 들병이는 그의 위상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근대성이 발현하고 확장되는 존재가 된다. ‘벌거벗은 생명’이 ‘내부를 지탱하는 외부’라는 역설적인 존재라는 아감벤의 역설을 받아들인다면 들병이의 비참한 상황은 당대 현실을 드러내는 가장 유용한 기제이고, 따라서 들병이의 신체를 통하여 근대적 권력-주체의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다.

4. 결론

김유정의 문학사적 위상은 구인회와 관련하여 모더니즘 작가로 규정되어 왔다. 그의 도시소설뿐만 아니라 농촌을 배경으로 한 일련의 소설들도 그러한 평가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김유정 문학의 근대성을 논하는 것은 한 작가를 넘어서는 근대문학의 규정성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일제의 식민지화 이후 시행된 일련의 사회경제 정책들과의 연관성에서 다수를 차지한 계층이던 농민들의 삶의 변화의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김유정의 일련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

32) 벤야민의 “순수 형태”가 기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은 예외상태라는 상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3) 양창렬, 앞의 글, 243쪽.

서 30년대 문학의 근대성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문학의 근대성을 사회경제적 토대와 관련시켜 분석하는 과정은 흔히 수량적 관점에서의 산업화와 연계되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식민지배하의 왜곡된 경제적 상황은 빈곤과 양극화의 가속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관점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신체의 권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푸코의 유사-주체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적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가를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몰락한 농민의 아내로서 성매매에 내몰리는 들병이는 전근대적 매춘의 연장선상에 놓이면서 화폐경제하에서 사물화 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근대적이다. 카페의 여급이나 기생과는 달리 들병이의 성매매는 경제적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포괄적 배제라는 아감벤의 생명정치의 예가 된다. 정조와 불륜이라는 이중적 상황, 누구의 소유도 아니면서 모두의 소유가 되는 경계적 상황은 농민의 아내의 신체를 중심으로 근대적 신체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생명권력과 정치가 마주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농민의 아내를 중심으로 하는 김유정의 일련의 농촌소설들은 하위주체가 마주서야 했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사물화 되고, 교환가치의 대상이 되며, 신체를 중심으로 권력이 생성되고 대립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소설인 것이다. 그것은 근대성을 차이를 통해 드러내는 방법으로서의 탈근대성이며 동시에 근대적 신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학작품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의 일제강점기는 또한 한국근대사의 근대 형성이라는 논점과 연계되어 있다. 한국사의 근대성 논쟁은 근대의 질적 규정성의 문제와 함께 문학의 근대성을 논의하는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고 있다. 김유정 문학의 근대적 신체의 문제는 문학작품의 주인공이 만들어 내는 근대성의 새로운 지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근대적 여성 주체의 규정성의 문제와 연계된다. 이러한 논의는 김유정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의 근대성 논의와 연계되어 확장되어야 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김유정, 『원본 김유정전집』, 전신재 편, 도서출판 강, 2000.

2. 단행본

감명관, 『조선풍속사3』, 푸른역사, 2010, 116쪽, 117쪽.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이재곤 역, 동문선, 1992, 442쪽, 451쪽.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동문선, 2007, 528쪽.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2003, 219-222쪽.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진석용 역, 나남, 2008, 240-241쪽.

3. 논문

강선형,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철학논총』 78, 새한 철학회, 2014, 129-148쪽.

김영희, 「푸코의 후기 ‘권력’에 관한 연구」, 『문화와융합』 37-2, 한국문화융합학회, 2015, 367-391쪽.

김주리,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파괴적 신체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21,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377-395쪽.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353쪽.

양창렬, 「생명권력인가 생명정치적 주권권력인가」, 『문학과사회』 19-3, 문학과학지성사, 2006, 238-254쪽.

이도흠, 「근대성 논의에서 패러다임과 방법론의 혁신 문제」,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2009, 253-285쪽.

이송순, 「1920-30년대 전반기 식민지 조선의 농가경제분석」, 『사학연구』 119, 한국사학회, 2015, 281-328쪽.

이태숙, 「근대성과 여성주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1집, 한국문학이

론과비평학회, 2003, 184-203쪽.

조정환,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137-165쪽.

주영하,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실천민속학연구』 11, 실천민속학회, 2008, 5-28쪽.

황정아, 「한국의 근대성 연구와 '근대주의」, 『사회와철학』 31, 사회와철학연구회, 2016, 37-64쪽.

홍혜원, 「폭력의 구조와 소설적 진실」, 『현대소설연구』 47, 현대소설학회, 2011, 391-417쪽.

Abstract

A study on modernity in Gim Yu-jeong's novel and women's bodies

Lee, Tae-suk

Modernity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of literature started from modernity of identity. To overcome the modernity of 'transplant literature,' the immanent development theory requires a methodological transition. From that viewpoint, accessing a new perspective of Gim Yu-jeong, who is classified as a modernist in relation to Guinhoe, will demonstrate the possibility of a variety of interpretations. The modern body of Foucault is a useful method that can explain modernity, because it is made by a political regulation in discipline and control.

'들병이', who is a wife of a peasant farmer, is driven into prostitution. She is a characteristic element in Gim Yu-jeong's novel, and her existence shows the situation of the farmers. They were kicked out of the country and forced into the city under the colonial economic poli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body of '들병이' is not everyone's possession, but under everyone's ownership; this shows the process of forming a quasi-subject. Her identity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aitress in the cafe or traditional gisaeng; her character and power are regulated and formed at networking. This is similar to the boundary body of Agamben. The body of '들병이' is regulated by politics, that is, it is connected to bio-power. Out of power, she is

materialized, and then she can live as a 'pure form.' Her location makes meaning, and this allows her existence to manifest and expend modernity.

Key words : bio-politics, bio-power, homo sacer, bare life, individual nomalisé, quasi-subject.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17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2월 2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